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조증이 바르바라 (1781-1839)



조증이는 경기도 이천(利川)의 양반 교우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16세 때 남이관(南履灌)과 혼인하였는데, 1801년 신유박해로 아버지 조 프란치스코와 시부모가 순교하고 남편도 유배를 당하자 친정으로 내려가 10여 년을 살았다. 그리고 서른 살쯤 다시 상경하여 정하상(丁夏祥)을 도우면서 선교사 영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832년 남편이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엔 그와 함께 유방제(劉方濟) 신부를 돌보며 공소를 세우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는 남편을 이천으로 피신시킨 뒤 체포되었다. 그리고 남이관을 잡으려는 형리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29일, 6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당시 나이 58세였다.

성화_한혜자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2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6(65),4 참조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제1독서 1사무 3,3L-10.19

화답송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8ㄴ과 9ㄱ 참조)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6,13ㄷ-15ㄱ.17-20

복음 환호송 요한 1,41.17 참조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요한 1,35-42

영성체송 시편 23(22),5 참조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엘리와 사무엘



실로 유적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옛 성읍 실로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제비를 뽑음으로써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뤄진 곳입니다(여호 18장). 또한 판관제에서 왕정으로 바뀌던 과도기에 백성을 이끌며 이스라엘 임금의 길을 닦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성소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 바쳐 성소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실로에서 사무엘을 키우고 교육한 이는 사제 엘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탓에 실제로 사제직을 수행한 건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였습니다(1사무 1,3; 2,18-26).

엘리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사제였지만, 불행한 끝을 맞습니다. 이유는 두 아들의 비행에 있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아들에 대한 엘리의 처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악행을 저질러 백성 사이에 나쁜 소문까지 퍼졌지만, 엘리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는 경고나 사제직을 맡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지속되게 만든 것입니다(3,13). 그 쫓값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에벤 에제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필리스티아에 참패합니다. 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님의 계약 궤를 지고 나간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전쟁에서 쓰러집니다. 사실, 계약 궤는 십계명을 보관한 상자이지만 주님의 왕좌를 상징하는 기물이었기에(4,4 참조)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시고 나갔던 것입니다. 에벤 에제르는 '도움의 반석'이라는 뜻인데(7,12) 이런 의미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건 역설적이면서 의미심장합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의 패배는 하느님께서 엘

리의 두 아들을 치시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으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엘리는 다른 면에서 책임감 있는 사제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건 두 아들이 전장에서 쓰러졌다는 비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계약 궤를 필리스티아에 빼앗겼다는 충격 때문이었습니다(4,18). 또한 그는 자신이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을 때(3,1) 사무엘을 질투하거나 그의 앞길을 막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3,8-9). 또한 어린 사무엘에게서 두 아들 탓에 주님의 재앙이 내릴 거라는 예고를 전해들은 뒤에도 그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3,17-18).

엘리의 이런 모습은 이후 사무엘에게서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제치고 예언직과 사제직을 겸하는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의 두 아들 역시 악행을 범해 백성에게 배척을 받는 탓에(8,1-5),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는 사울이라는 새 젊은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10,17-27). 하지만 사무엘 역시 그에 대해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스승에 그 제자였던 것이지요. 그 뒤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다윗에게 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으니,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한참 전에 미리 닦은 '구약의 세례자 요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㉘

- 굴종과 자기 경멸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증진을 가로막는 오늘날의 암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굴종과 자기 경멸”(51-52항)을 꼽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암운들이 있습니다. 바로 ㉑ 부서진 통합의 꿈, ㉒ 모든 이를 위한 계획의 부재, ㉓ 공유의 도로지도가 없는 세계화와 진보, ㉔ 팬데믹과 다른 재난들, ㉕ 국경선이 가로막는 인간 존엄, ㉖ 소통한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는 ‘굴종과 자기 경멸’은 앞선 것들과는 달리, 문화적 측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문화’란 한 집단의 생활 양식과 행동 양식 그리고 그 산물들을 말합니다.

회칙은, 저-발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들의 문화를 흉내 내어 복사하고 소비함으로써 스스로 국가적 자존(自尊)을 떨어뜨리는 ‘굴종’의 추세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집단이나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사고(思考)·행동 방식과 고유의 문화를 배척하고, 모든 사회적 병폐가 자기네 문화에서 발생한 것인 양 문화적 정체성을 ‘경멸’하는 추세도 경계합니다. 회칙은 이런 ‘굴종과 자기 경멸’의 태도가 ‘천박하고 우스꽝스러운’ 열망에서 비롯된 거라고 비판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들에서 ‘닭지 말아야 할’ 문화들을 제시합니다. ㉗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 ㉘ 전체로서의 실재가 아니라 일부의 측면만을 보려는 ‘환원주의’, ㉙ 사회·인격적 관계보다는 개체로서의 주체를 절대시하려는 ‘개인주의’, ㉚ 합당한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자유와 결합한 ‘소비주의나 공리주의’, ㉛ 인간의 기술과 능력만을 강조하는 ‘기술 및 능력지배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들의 이면에는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지닌 가치의 소중함을 부정적인 접근법을 통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파괴하여 예측시키는 지배와 종속의 방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번영한 나라들’의 문화에는 다른 많은 이들의 ‘낮은 자존감’을 활용하여 이 세상을 자기 기준에 맞게 획일화하려는 시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시도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게만 복무하는 문화를 창출합니다. 셋째, 이런 문화는 강력한 이익집단이나 금융 투기꾼과 약탈자에겐 절호의 기회가 되지만, ‘사회적 약자’에게는 언제나 실패만을 안깁니다. 마지막으로, 자국 문화를 경멸하고 세계화되고 획일화된 문화에 굴종하는 추세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마저 바른 장기 발전 계획을 고안해 낼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회와 구성원들은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의 길’ 대신 ‘지배와 종속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㉜

“내가 사랑해야 한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사랑하렵니다.” (2코린 11,30)

뇌출혈로 입원하신 70대 남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나는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서둘러 환자의 침대 발치에서 눈을 감고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명색이 원목 신부인 나는 나중에 보호자에게 ‘환자를 방문했으나 환자도 주무시고 보호자도 안 계셔서 기도만 했다.’고 전할 요량이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형편없는 환자 방문을 하겠다고 병원 사목을 지원한 내가 아니었다. 날마다 환자들을 찾아 나서시던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를 수 있는 길이라 믿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원목 신부의 삶이었다. 하지만 청한 대로 발령을 받았으며 기뻐한 첫날을 빼면, 그 후 몇 달이 지나도록 환자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라도 줄까 무서워 자꾸 피해 다니는 환자 방문을 할 뿐이었다.

“네가 왜 그러는지는 알고 싶지 않다. 그저 내 신자들이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말을 듣기 싫다.”

이전 본당에서 주임 신부에게 들었던 이 말이 가시가 되어 가슴에 콕 박혔다. 그리고 이번처럼 내가 환자 방문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튀어나와서 나를 마구 찢러대곤 하였다.

‘그래, 너는 같이 살던 신부뿐만 아니라 신자들까지 힘들게 하던 놈이야. 아파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네 가시에 찢려서 더 상처 입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지금이라도 다 그만두는 게 어때?’

이렇게 분심하고 있다가 인기척에 살짝 눈을 떴는데, 주무시는 줄 알았던 환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면서 나를 보고 있었다. 나쁜 짓 하다 들킨 아이처럼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환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듯 몇 번씩 눈을 찡그리고 계셨다. 이윽고 환자의 시선이 나의 목에 있는 로만 칼라에 한동안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셨고 그렇게 한참을 우셨다.

“제가 이 정도라도 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신부님을 보내어 용서하시니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숨을 고르며 떠듬떠듬 이야기를 다 마치신 환자는 다시 감정이 폭발쳐 오르는지 어린아이처럼 영영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셨다.

정작 소리 내어 울고 싶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북받치는 마음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사람 역시 나였다. ‘약한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무력감에 꼼짝 못하는 나를 가지고도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환자를 잘 돌보시는구나. 나조차 미워하던 나를 나의 주님께서서는 어찌 이리 귀한 도구로 다시 써 주시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면서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서는 아무것도 못 하던 나를 이렇게 환자의 침대 발치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영적 돌봄가로서 환자들처럼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니,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걸 사랑하는 당신의 도구로 나를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도 나처럼 약해도 괜찮다고 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 🌱



교구장 동 정

16(화)	교구청회의 - 교구청 회의실
20(토)	견진성사 - 진건 성당
21(주일)	교감단 연수 파견미사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이번 주

1/14(주일)~20(토) : 루카 3,1-22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성경 읽기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27(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구 소식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미사 안내 ▶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 시메온의집 직원 모집

인원 여 〇 명 (60세 이하) 모집분야 미화 및 주방업무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자격증 사본 근무처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71 시메온의 집
 근무시간 주말 근무 포함 (주 40시간)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3층 관리국
 문의 031-850-1426 관리국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날짜 1/30(화)~31(수) [1박 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회비 9만원 (청소년 7만원)
 접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갤러리 평화] 따뜻한 겨울나기 오픈클래스 - 코일링 화병 만들기

일시 1/23(화) 14시 ~15:30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강사 우소영 마리아 (갤러리 평화 부관장) 신청 인스타그램 @gallery_pyeonghwa

최대한 신부와 함께하는 인문학 피정

날짜 2/17(토)~18(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교재 <멘토의 탄생> 프랑수아 드 페늘롱 지음, 강미란 옮김, 푸르메, 2012
 주제 멘토를 만나기, 멘토가 되기 참가비 6만원 (교재 미포함)
 문의 031-850-1446 선교사목국

신청 ▶



[담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다락방 피정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초기 교회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피정
일시: 2/5(월)~6(화)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2/4(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꽃동네 젊은이들을 위한 1일 기도 피정

일시: 1/20(토) 13시~17시
장소: 서울 꽃동네 카타리나 센터 5층
대상: 고2~35세 미만 젊은이
문의: 010-4468-5628 형제회
010-4830-2820 자매회

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19(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다윗(성경 속 인물에 관한 영성2)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 (전주교구)
문의: 010-2127-0032

작은형제회 겨울 성소 피정

날짜: 1/26(금)~28(주일)
장소: 안토니오 피정의 집
주제: 너 어디 있느냐?
대상: 35세 이하 형제
문의: 010-6608-3217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2/16(금)~24(토), 3/16(토)~24(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1/15(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15(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 피정

1차: 1/30(화)~31(수), 2차: 2/20(화)~21(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 회비: 10만원
접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일시: 1/17(수) 14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 (전화, 문자 모두 가능)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호평동 성당 관리장 모집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사무행정, 회계 업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추천서 (서류 반환 불가)
접수: 1/21(주일)까지, 우편만 가능
접수: 경기 남양주시 늘을로 73번길 27
호평동 성당 (우 12142) / 전화 문의 사절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 - 2월 학기

내용: 성모님에 관한 체계적 공부와 33일 기도
<대면반> 2/6~7/28,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6개월)
<중반> 2/8~7/28, 매주(목) 20시~22시
문의: 010-2724-4819 마리아 학교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6(화)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 모집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접수: 1/31(수) 까지, 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 입양 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시스피나 남성 합창 단원 모집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시간: 매주(수) 19:30 / 시스피나(신촌)
문의: 010-9842-8818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 3월 개강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매주(화) 10시~12시, 최지원 수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1
둘째, 넷째(화) 14시~16:15, 송봉모 신부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매주(수) 10시~12시, 홍기령 교수
그리스도의 불편한 진실 7가지
매주(수) 14시~16시, 김관희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 옹기 강독
매주(목) 10시~12시, 주지원 박사
각 7주~12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사회복지 현장 실습

2024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 3/2~6/8, 매주(토) 15주
접수: 2/23(금)까지
수강료: 40만원 / 현장실습: 160시간
문의: 02-705-8214, https://scec.sogang.ac.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음악원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 (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 주40시간 (08:30~17:30)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신곡2동 성당 관리원 채용

대상: 세례 받은 교우, 시설관리 업무
인원: 1명 (계약직)
※ 자세한 사항은 교구 및 본당 홈페이지 참조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0(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햇살사목센터 연구원, 사무직 모집

분야: 연구원, 디자인 가능 사무직
1년 계약직(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 자세한 내용은 www.hatsal.or.kr 공지사항 참조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 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3/1(금)~11(월) 스페인 남부, 파티마 (500만원)
3/7(목)~17(주일) 서부지중해 크루즈 (499만원)
3/11(월)~21(목) 동부유럽 성지순례 (480만원)
4/22(월)~ 5/3(금) 발칸반도 성지순례 (51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 (13일 560만원)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26(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1(월) 산티아고 도보순례 118km (12일)
4/15(월) 메추고리에 발칸3개국 헝가리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20(월) 튀르키예(터키) 그리스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www.catholictravel.co.kr

2024년 이탈리아 순례 - 작은형제회

75차: 5/22(수)~6/3(월) [12박 13일]
77차: 10/25(금)~11/6(수) [12박 13일]
내용: 로마, 아시시 및 프란치스코 성지
문의: 010-9704-9495,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성지 한국대표부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티핑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26(금)~29(월), 2/16(금)~19(월),
3/15(금)~18(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비용: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 원데이클래스

일시: 1/27(토) 14시 / 대상: 청년
내용: 원석 목주팔찌 만들기
문의: 010-5639-8071

성베네딕도수도원 전례, 탐방 & 성지순례

날짜: 2/17(토)~19(월) 수도원, 대구
3/1(금)~4(월) 수도원, 부산, 마산
3/14(목)~17(주일) 전주, 광주
4/20(토)~24(수) 울릉도, 독도, 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대형 버스)
성지순례: 5/15(수)~28(화)
독일수도원, 바티칸, 이탈리아(수비아코)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예수고난회 성지순례

감사 -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일시: 5/22(수) 07:30 ~ 24(금) 18시
회비: 1인 36만원 (1인 1실)
장소: 서울 출발→광주 명상의집
문의: 062-571-5004, 010-4402-8014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 중점 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4/15(월)~26(금) 루르드, 스페인, 파티마 (505만원)
6/7(금)~15(토) 이스라엘 (465만원)
문의: 010-7374-321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눈꽃산행: 1/27(토)~29(월), 2/3(토)~5(월)
2/14(수)~16(금), 2/23(금)~25(주일),
2/27(화)~29(목)
자연순례: 3/1(금)~4(월), 3/8(금)~10(주일),
3/13(수)~16(토)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DIocese of Uijeongbu

교육

장례지도사(봉사자, 국가자격 취득) 교육

봉사자반 (10주) 3/9~5/11 매주(토) 09시~18시
자격증반 (300시간) 3/9~10/26 매주(토) 09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교구청 내 대회의실
인원: 봉사자반 50명, 자격증반 30명
문의: 031-874-6272



모집

2024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의정부본원 저녁반 화·목 19:30~21:40
남양주본원 오후반 수·금 14시~16:10
과정: 2년제 4학기, 매학기 4과목 (3개월 수업)
신청: 2/15(목)까지 [선착순 100명]
홈페이지 참조 (포털 → '신앙교육원' 검색)
등록금: 학기당 35만원 (분납 가능) / 문의: 031-850-1545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가톨릭교회는 매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와 함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지냅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뿌리를 확인하고 일치를 지향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역사 속에서 몇 차례의 분열을 겪었습니다. 1054년, 로마 가톨릭과 동방 교회는 상호 파문을 하면서 단절되었고, 동방 교회는 스스로를 ‘정교회’(正教會, Orthodox Church)라고 불렀습니다. 1517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改新教, Protestantism)가 갈라졌으며, 이후 개신교는 여러 종파로 분화하였습니다. 1534년에는 영국의 ‘수장령’ 제정으로 성공회(聖公會, Anglican Church)가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교 일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교황 레오 13세(1878-1903년 재위)는 당시 동방 교회를 일컫던 ‘이교인’과 프로테스탄트를 칭하던 ‘열교인’이라는 부정적인 용어 대신 “갈라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교회 일치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1958-1963년 재위)은 동방 교회와 개신교의 대표들을 공의회에 초대하였고 ‘그리스도인 일치촉진사무국’을 창설하였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1963-1978년 재위)은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 1964)을 발표하여 교회 일치에 신학적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가톨릭교회와 루터교세계연맹이 ‘의화교리에 관한 합동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에는 감리교도 함께 참여하여 합동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한편,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폴 왓슨 신부는 1908년 ‘교회 일치 기도 주간’을 제안해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2월 22일인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이 당시에는 1월 18일이었고, 25일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자는 취지였습니다. 1968년부터는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가 공동으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68년 1월, 명동성당에서 최초로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들이 한데 모여 일치 기도회를 열었고, 이후 가톨릭과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치 운동을 위해 ‘한국그리스도교일치회의’가 조직되었고, 2014년 5월에는 교회 일치를 위한 공식기구인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올해 신앙과직제협의회가 발표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담화문의 제목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우리 모두 외면과 배척이 아닌 이해와 포용으로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에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8일 (리베라따): 구미경

전례

▣ 2월 성시간
일 시: 2월 2일 금요일 오후 3시

▣ 2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1월 14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1월 21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본당공지

▣ 2월 봉성체

일 시: 2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초 축성 및 봉헌 안내

2월 2일(금) 주님 봉헌 축일에 1년 동안 성당 제대에 사용할 초를 봉헌하실 분과 가정에 사용할 초를 구입하실 분은 본당 사무실에 문의 신청 바랍니다.

성당 제대 사용 봉헌 초: 1개 10,000원
가정용 초: 1개 5,000원

▣ 성지 가지 회수

2월 14일 재의 수요일에 참된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예절에 사용될 재를 만들어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어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4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1월1일 ~ 1월7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11건	1,090,000원
주 일 헌 금		940,000원
하느님의 집	2차	445,000원

▣ 감사헌금

송백아	300,000원	채상겸	30,000원
익명	200,000원	이영옥	20,000원

복음 말씀 -

그들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분과 함께 묵었다.